

광주일보 인터넷 패널 국정현안 긴급 설문

“균형발전 후퇴했다” 94%

영산강살리기 조건부 찬성...65%가 세종시 수정 반대

광주·전남 여론 주도층 10명 가운데 9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역균형발전이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지역균형발전 저해 우려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조사결과는 광주일보가 3일 본보 인터넷 패널 200명을 대상으로 2~3일 이틀동안 긴급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 116명의 응답을 취합·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패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94.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들 중 절반(48.3%) 가량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크게 후퇴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45.7%는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미미해 수도권-지방 격차는 그대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 등 나름대로 의지가 있다'고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0%에 그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르고 세종시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패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4.7%가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반했다. 응답자 중 26.7%는 '이전 부처 재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패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과

는 달리 세종시 수정안이 불거지면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2면으로 계속>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옛 도청앞 성탄트리 점등
중순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가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2009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높이 18m짜리 원뿔형 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인터넷 패널=광주일보사가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 한국 신문 사상 최초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그룹. 광주·전남지역 정치, 경제, 법조, 여성, 문화 예술,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 광주역~송정역 무료 전동차 운행

고속철 도심 승객 연결

오는 2014년 광주~오송 호남고속철도 완공과 맞물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 전동차가 운행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3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광주역~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무

료 셔틀전동열차의 운영을 협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 지역 KTX 역사가 광주 송정역으로 정해지면서 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광주~오송 호남고속철이 본격 운행되면, 광주역 등지에서

KTX 탑승권을 구입한 승객들이 셔틀전동열차를 이용해 송정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송정역에서 KTX를 이용한 승객들도 셔틀 전동열차를 타고 광주역으로 갈 수 있다.

시는 셔틀 전동열차를 이용하면 광주역에서 송정역 12.9km 구간을 10분 이면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셔틀전동 열차운행이 가능해진 것은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광주시와 승객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광주역 연간 이용 승객이 무려 200만명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시는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 완공 후에도 광주 송정역의 주차면이 336면에 그치는 점을 감안, 주차장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환승 편의 체계 구축을 국토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알림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대교의 전통, 대양의 보스 피싱의 정수를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는 매년 5월 1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억압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세기 위해 걸었던 선조들이 성취한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2009년 제45회째를 맞이 초상은 물론 전국 마라톤대회와 그 가치가 밀접하는 과정의 판매단으로 임하게 됩니다.

광주일보사는 우리 대회의 성황과 격려에 인주하여 최고 이념 대회도 더욱 열거함에 순조롭게 개최되는 한편, 건강, 가족, 사랑, 봉사인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평의 빛과 기쁨이 함께하는 대회를 함께 달립니다.

- 일시 : 2010년 5월 1일(일) 08:30~10:00(등록소속할 09:00)
- 장소 : 광주월드컵 경기장 ~ 남양교
- 종 목 :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 참가 : 2010년 2월 10일(수)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bnews.com) (문의) 225-0541

주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천리남도
주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철도파업 철회 오늘부터 열차운행 정상화

단체합의 해지를 이유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가 파업돌입 8일 만인 3일 전격적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3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이후 8일 만에, 노조원들은 4일 오전 9시부터 현업에 복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는 피로와 피곤을 털어내고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철도 현

장으로 복귀한다"며 "철도공사는 이제라도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 철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기입니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89/001-222-8100